

디지털시대, 전자출판물의 현주소

지금까지 총 1311종 선택 ... 다양한 형태의 시도 이어져

지난 '87년 '전자출판'의 개념이 도입된 이래 다양한 형태의 전자출판물이 선보였다. 몇천원짜리부터 1천만원에 이르기까지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전자출판물이 몇종 나왔고 몇종 유통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통계를 내는 곳도 없고, 유통체계도 투명하지 않아 수치를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전자출판물은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과 정보에 대한 요구의 물결은 그만큼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출판물은 이미 거의 모든

출판산업에 적용되고 있다.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담은

전자출판물은 앞으로 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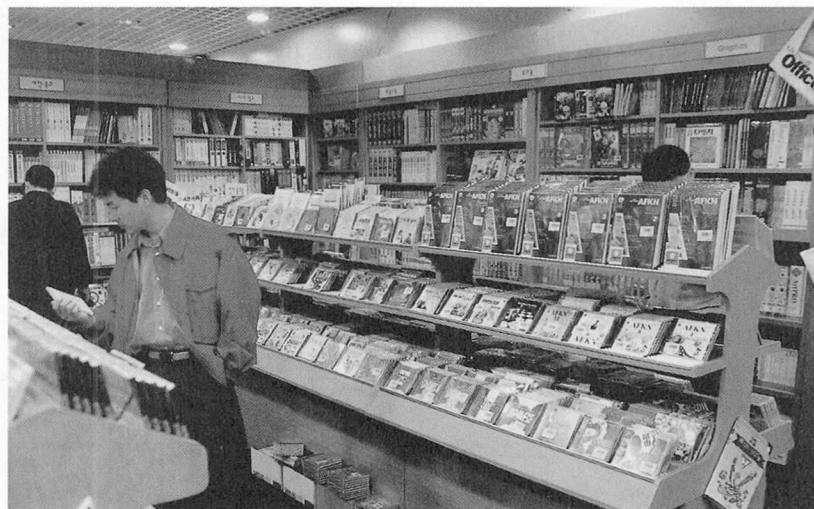
발전할 것이다.

디지털시대를 맞아 새로운 형태의

전자출판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자출판물이 출판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전자출판물의 수요도 크게 늘어났다.

(표 1) 분야·연도별 전자출판물 발행 현황

분야	주제	연도							계	분야 총계
		'91	'92	'93	'94	'95	'96	'97		
교양	역사/민속/기록				5	17	10	7	39	161 (12.3%)
	지리/기행/관광		1	2	3	9	27	7	49	
	인물/종교	1		1	2	13	10	8	35	
	시사/언론/출판			1	3	6	13	15	38	
실용	목록/명부/연감				2	11	16	9	38	236 (18.0%)
	사전				6	7	11	17	41	
	취미/가정/건강			2	3	19	26	13	63	
	기술/과학				6	16	21	12	55	
	행정/법규/기업				2	8	15	14	39	
교육	아동/유아		1	3	16	20	90	49	179	571 (43.6%)
	학습				12	20	26	24	82	
	교재			5	6	15	37	24	87	
	어학(외국어)	1	1	7	28	47	71	68	223	
예능	문학				1	1	4	3	9	135 (10.3%)
	미술/사진				2	6	10	32	62	
	만화			1		8	22	7	38	
	체육/무용/오락				3	4	16	3	26	
컴퓨터	컴퓨터 일반			1	1	16	7	2	27	196 (14.9%)
	프로그램			2	16	24	22	16	80	
	그래픽/폰트			1	4	13	22	12	52	
	통신			1	5	18	13	37	74	
정기간행물					1	5	3	3	12	12(0.9%)
합계		2	3	28	127	294	519	338	1,311	1,311

(97년말 현재)

(표 2) 교보문고 전자출판물 유통(보유) 현황

분야	동화	예술	전과	수학	사회·역사	영어	백과사전	학술·시사	사진·디자인
종	45	17	8	55	58	71	33	185	95
분야	의학·건강	컴퓨터·사무	영어회화 및 외국어	종교·취미	법률	계			
종	35	95	152	64	9	922			

(99년 3월말 현재)

현재는 CD-롬 형태가 대부분

전자출판물이 상용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년. 하지만 이미 거의 모든 출판산업에 적용되고 있다. 현대출판연구원 김희락 원장은 전자출판물의 발전과정을 3단계로 분류한다.

1단계는 종이 출판물 제작공정의 전산화 과정을 전자출판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출판물을 생산하기 위해 디지털 전산화로 바꾸는 과정, 즉 바이트(byte) 단위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해당한다. 2단계는 완성된 전자출판물로 자기디스크류·광디스크류·광자기 디스크류·전자카드·전자수첩 등이 해당한다. 3단계는 정보통신 및 방송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사이트(www.kric.ac.kr)와 최근 <고려사>, <삼국사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허성도 교수(서울대 중어중문학과)의 인터넷 사이트 '국학 동양학 연구자료집성(www.clepsi.co.kr/eduline/hsy)' 등이 해당된다.

통용되는 전자출판물의 대표적인 형태는 CD-롬으로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윤청광)에서 발행하는 <출판연구> 자료에 따르면, '91년 처음 발간된 이후 '97년까지 총 1311종(도표 참조)이 선보였다. 이 가운데 교육 관련 전자출판물이 많고, 주제별 색인도 교육과 관련된 어학분야가 223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인쇄물과 비교해 전자출판물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부피에 비해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 서울시스템(주)의 <조선왕조실록>과 (주)누리미디어의 <고려사>는 3~2장의 CD-롬에 원고지 1백만 장을 수록했다. 문학분야 CD-롬으로 서울대 인문정보연구소의 <한국현대문학 100년>과 계간지 1백호를 담은 <창작과비평> 역시 방대한 분량을 수록했다. 좋은세상과 나라법령정보통신이 펴낸 <나라대법전>도 5만여 페이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았다. 반면, 정보량은 적지만 기능성을 중시한 전자출판물도 대거 선보였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어린이 학습물이 차지하고 있다.

100% 복사·복제 가능해 암거래 성행

기왕의 전자출판물이 지식과 정보를 함께 담고 있다면, 앞으로는 정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경수 연구실장은 "최근 낱씨·법령·지리·전화번호 등 주로 정보만 담아 검색기능을 강화한 전자출판물이 늘고 있다. 이는 전자출판물이 인쇄출판과 전자출판의 공백을 채우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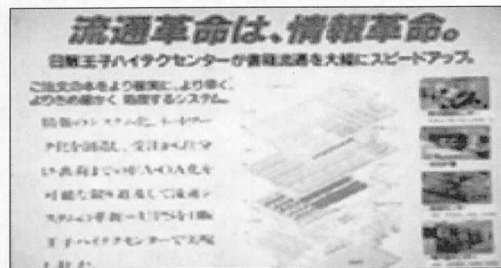
전자출판물에 대한 독자의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자출판물에 대한 인지도는 50%를 육박하고 있다. 이용률은 8~13%, 실질 구매률은 2~5%에 불과

출판 인력을 리세기형 출판 전문 인력으로 양육합시다

4년제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 출판학과 설치가 시급합니다

21세기는 첨단 정보화 사회이면서, 문화산업이 경제 활동의 중추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지식 기반 사회에서 지식을 기록하고 전송시켜 나갈 출판 인력은 자질이 뛰어나야 합니다. 앞으로 출판 인력의 자질은 국가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출판 전문 인력을 길러 내는 교육체계가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판 관련 학과가 주로 전문대학에 설치되어 있고, 4년제 대학에는 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대학원에서도 독립적인 학과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판 교육은 기능 중심의 전문 대학이나 출판편집학원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과정에 맡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본출판판매주식회사의 유통혁명명 정보혁명이라는 POP.

또한, 우리의 교육 현실은 국문학이나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인력을 편집·교정업무에 당장에 투입시킬 수 없을 정도로 맞춤법, 띄어쓰기 초차 숙달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채로 출판 현장이나 교육 현장으로 바로 보내지고 있으니 상황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출판 교육 역시 단순한 기능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번역 출판, 학술 출판, 전문도서 출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편집자들이 타문화권의 언어와 문화의 이해, 문장력, 번역 대조에 자신감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출판 교육을 인문학 중심에서 사회과학적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마케팅 환경의 변화와 국제 문화 산업의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틀로 새롭게 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과 대학원에 출판학과를 설치하고, 국가와 출판계 차원에서 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투자가 21세기에 한국 출판계의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예영커뮤니케이션 · CUP 152-059 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419-1

출판부 T.851-2247 출판유통사업부 T.830-8566 F.830-8567 도모사업부 T.851-2248

CUP는 예영커뮤니케이션에서 위탁 경영하는 출판사입니다

해 아직 상용 정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자출판물에 대한 인지도와 쓰임 정도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자출판물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이유는 전자출판물의 유통구조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출판물은 대체로 두가지 경로를 통해 유통된다. 인쇄출판물처럼 서점 등을 통하거나 전자제품처럼 전자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교보문고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출판물은 총 922종(도표 참조). 20% 가량 차지하는 해외 저작물을 제외하더라도 상당수가 전자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통망의 다원화는 거래상황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기획자 측은 장래의 시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어느 전자출판물이라도 100% 복사·복제될 수 있고 암거래되고 있다는 점. E포인트 김형주 부장은 "전자출판물은 모두 복사·복제가 가능하다. 복제된 것은 지역별 점포직방에 의해 거래되고 있다. 현재는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차원의 '전자출판물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다.

전자출판물 자체의 한계도 무시할 수 없다. 막대한 투자비가 곧 높은 소비자 가격으

로 나타나 '비싸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 직접 검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디지털시대, 새로운 기술진보 반영할 듯

디지털화가 지속될 동안 전자출판물은 발전할 것이다. 이기성 교수(계원조형예술대 전자출판과)는 "전자출판물의 형태가 지금은 CD-롬이 주지만, 앞으로는 DVD(디지털 다기능 비디오 디스크)로 발전할 것이다. 더욱 발전하면 화면책 형태의 전자출판물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출판의 새로운 경향과 기술진보를 반영하듯, 최근 전자출판물의 결정판으로 여겨지는 '전자책'이 선보였다. 개인정보단말기(PDA)처럼 휴대할 수 있는 책 모양의 전자책은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해 어떤 도서든지 입력할 수 있다. 정보를 수록할 수 있는 용량도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초등학생이 6년 동안 배울 교과서를 한권의 전자책으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다. 가격이 다소 비싼 것이 흠이지만, 현재 나온 '로켓 e북'과 '소프트 북'에 이어 '에브리 북' 등 다양한 형태의 전자책이 곧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시대를 맞아 새로운 형태의 전자출판물이 쏟아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갈수록 다양해지는 전자출판물 시장 변화에 전자출판계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주목된다. — 오완진 기자

전자출판물 인증제

정부는 정보화사회를 맞아 정보컨텐츠의 핵심 분야이자 새로운 출판매체인 전자출판물이 효율적으로 제작·유통될 수 있도록 '98년 12월 1일부터 '전자출판물 인증제'를 도입했다. 한국전자출판물협회(회장 김경희)는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전자매체에 수록한 출판물인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 일체에 대하여 '인증마크'(EP)를 교부한다. 인증절차는 인증 신청서 제출, 인증위원회(위원장 이기성) 심의, 인증서 교부, 인증마크 부착, 시판 등이다. 인증받은 제품은 인증번호가 포함된 인증마크 및 ISBN 바코드를 전자출판물 케이스 뒷면에 부착해 시판해야 한다. 인증제가 정착되면 전자출판물은 신뢰성과 서점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고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오완진>



한 전자출판물의 뒷면. 우측 아래로 바코드와 인증마크를 볼 수 있다.